

7 개 성당 방문

이 관습은 무엇을 상징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교구민들은 성목요일에 7 개 교회를 방문할까요? 이것은 가톨릭 세계 전역에서 성주간 동안 행해지는 가장 흔한 전통들 중 하나이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의 마지막 만찬에서 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골고타 언덕)에 이르는데 일곱 가지 경로를 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습은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여행하시는데 우리도 영적인 방법으로 동행하려는 가톨릭 신자들의 헌신적인 의도를 상징합니다.

방문을 위해 다음 묵상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첫 번째 방문

예수님은 윗방에서 겔세마니로 끌려가 한나스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 18, 1-14).

묵상: 예수님께서 겔세마니 동산에 도착하신 것은 밤 10 시쯤일 겁니다. 그의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보고 괴로워하며 인간의 배은망덕을 경험했습니다.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며 약 세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그 동안 눈물과 피와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유다가 도착하여 입맞춤하며 주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저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 복음 6, 47-54)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는 믿음과 자각으로 영성체를 받아 제가 받은 은총을 굳건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방문

야간 재판은 카야파 대사제 앞에서 시작됩니다. (마태 26, 57-68)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비열한 악인처럼 결박 당한 채 한나스로 부터 예수님의 제자와 가르침에 대해 질문을 받고, 사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잘 아는 이들에게도 불굴의 의지와 온순함으로 대답하십니다. 경비병은 예수님의 뺨을 때려 비틀거리시게 했습니다.

저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므로써 제게 가장 큰 사랑의 증거를 주시기 전날, 주님께서서는 제 삶의 성찬 속에 당신의 몸과 피를 남겨두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받지 못한 이 거대한 선물에 대해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방문

최고 의회 앞에 서신 예수님 (루카 22, 66-71)

묵상: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 전달되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불리한 증거로 얼마나 거짓 증언이 인용되는지. 심문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도록 어떻게 도전 하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부인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형선고를 받으셨는지도 알게됩니다.

저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는 거룩한 미사가 정말로 갈보리 (갈고타 언덕) 의 희생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저희의 제단에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 거룩하게 하신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되어, 매 미사때 마다 주님을 대표하는 저희의 사제들의 축성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방문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요한 18, 28-38)

묵상: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한 백성의 말쑥꾸러기 악당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진리의 사람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분께 사형을 선고하라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때 저희와 함께 남아 저희의 양식이 되시는 주 예수님, 성목요일 성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세기가 끝날 때까지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성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전하셨습니다. 사제 없이는 성체 성사때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아는 사제들과 모르는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섯 번째 방문

헤로데 앞의 예수님 (루카 23, 5-12)

묵상: 호기심이 많은 헤로데는 자신의 계획을 굽히지 않고도 예수님을 뵈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헤로데가 예수님께 아침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침묵을 지키십니다. 헤로데는 대답이 없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화려한 흰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 빵과 포도주의 성스러운 표징안에, 가장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숭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실제 존재하심을 모든 헌신과 존경으로 숭배하겠습니다. 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의 존재를 굳게 믿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주님의 성전에서 자주 찾아뵈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섯 번째 방문

다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마태 27, 15-30)

묵상: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썽꾼도 아니시고, 군중들이 고발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님을 풀어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끝내겠다고 맹세한 원수들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불편해 합니다. 주님의

행동과 가르침은 그들의 기득권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가시로된 왕관이 씌워집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보러 왔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주치의에게 가는 것처럼, 제 구세주께로 갑니다. 주님, 주님의 성체를 받기 위해 저를 정화시켜 주는 고해성사를 베풀어 주신 모든 큰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곱 번째 방문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루카 23, 24-25)

묵상: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조롱, 경멸 속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와 동행했던 어머니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경건하게 묻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 일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력한 말씀과 행동으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속의 예수님: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물질적인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급하게 지나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만 저는 지구의 모든 성막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항상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저의 망각과 무관심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을 더 자주 찾아볼 것을 약속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영성체에 접근하는 것을 잊은 모든 이들의 용서를 구하며, 또한 제 자신의 선입견이나 죄에 익숙해지는 무관심으로 주님을 받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저의 좋은 지향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의 결점을 없애고 거룩한 성찬식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자주 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